

芬皇寺發掘調査略報

文明大

一、머리말

지금까지 芬皇寺에 대한 發掘調査는 두번에 걸쳐 실시되었다. 첫번째는 지난 七五二년 二月 八일부터 一八일까지 一一日 동안 실시한 實測과 豫備調査이었고, 두번째는 一一월 八일부터 一二월 四일까지 실시한 본격적인 발굴 조사이었다. 이 보고는 두번째의 발굴조사를 중심으로 그 개요를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므로 불충분한 점이 허다할 것이다. 상세한 것은 發掘 후에 펴낸 正式報告書에 미루어 둔다. 發掘調査는 團長에 東國大 博物館長 黃壽永博士, 發掘담당에 文明大 그리고 調査助手로 김희옥(大學院 史學科) 이기선, 김선태 등이 참가하였고 豫備調査는 文明大가 주관하였는데 實測은 李在榮이 담당하였으며 助手로 程善鎭, 李基善(佛敎美術科) 등이 참가하였다. 發掘調査團의 명칭은 東國大學校 芬皇寺發掘調査團이라 이름하였다. 특히 이번 調査는 芬皇寺(住持 月棲스님 과 동철스님)의 至極한 願力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二、調査方針

이번 발굴은 당국의 慶州 皇龍·芬皇地區 淨化事業과 芬皇寺側의 芬皇寺 後園計劃에 따라 실시된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조사방침을 세웠다.

- ① 一次로 金堂址를 찾아낸다.
- ② 따라서 우선 境內의 平面圖를 정확히 그린다.
- ③ 이와 동시에 후보지를 선정하여 試掘한다.

나、發掘調査方針

- ① 豫備調査로 金堂址는 대개 現 普光殿 周圍로 推定되었으므로 推定 金堂址에 限하여 發掘한다.
- ② 가끔적이면 金堂址의 周圍모를 밝혀내고 부득이할 경우 다음으로 미룬다.
- ③ 따라서 可能한 限 세심한 주의를 기울리면서 충분한 考察과 討議를 거치는 方法을 擇한다.

三、文獻을 통해 본 寺歷

芬皇寺가 創建된 것은 新羅 善德女王 三년 즉 六三四년이라고 三國史記는 전하고 있다(三國史記 卷第五 善德王三年正月 改元仁平芬皇寺成)。아마도 善德王이 즉위하자 곧 芬皇寺의 창건에 착수하였던 것 같고 그 三년에 완성하였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靈妙寺가 그 이듬해 完成되고, 皇龍寺塔이 一〇년 후에 세워진 것을 보면 芬皇寺는 善德女王이 최초로 세운王의 願利(王刹)로써 가장 중요시한 사원이었던 것 같다. 선덕여왕이 분황사를 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였던지는 慈藏法師를 歸國시켜 이곳에 住錫토록 명령한 데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三國遺事 卷四 慈藏定律條)。元曉스님도 이곳에 머물면서 華嚴疏를 지었다고 하며, 결국 원효의 遺骸는 塑像으로 만들어져 芬皇寺에 安置하였다고 할만치 원효와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던 것 같다(三國遺事 卷四 元曉不羈條)。또한 원효와 관련된 것으로 원효에게 미타신앙을 배운 廣德·嚴莊 가운데 廣德은 芬皇寺의 外居노비였던 것 같다(三國遺事 卷五 廣德·嚴莊條)。그 후 芬皇寺가 주목되는 것은 景德王때 이다. 漢岐里의 女子인 希明의 아기가 눈이 어두웠는데 芬皇寺의 左殿北壁의 壁畫인 千手觀音(大悲)에 기도하여 눈이 뜨여졌다는 유명한 실화가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芬皇寺에는 左殿이 있었다는 사실이며 이것은 伽藍配置의 研究에 귀중한 資料로 주목되어 왔다(三國遺事 卷三 芬皇寺 千手大悲 盲兒得眼)。

특히 이때 藥師銅像을 造成한 사실은 주목된다. 즉 경덕왕 一四년(乙未年)에 藥師銅像을 鑄成했는데 무게가 무려 三六六、七〇〇斤이나 되었다고 하며 만든 匠人은 本彼部の 強古乃末이라고 한다(三國遺事 卷三 芬皇寺

藥師銅像條)。이銅像은 좀變形되긴 했지만 아직도 現 普光殿內에 奉安되어 있어서 매우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芬皇寺는 그 후 계속 번창하였던 것 같으며 高麗時代에 내려와서도 여전히 번성하였던 모양이다. 芬皇寺의 유명한 和靜國師碑도 高麗 숙종년간에 만들어지고 있다. 東京雜記에는 고려 숙종때 芬皇寺의 藥師銅像을 再造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은 三國遺事에 皇龍寺 銅鐘을 고려 숙종때 再造하였다는 말을 잘못 인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당시 또 하나의 커다란 佛寺가 芬皇寺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는 일이므로 속단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몽고란 때에 芬皇寺는 크게 파괴되었다는 口傳도 있지만 그래도 큰 규모는 그대로 지켜 내려왔는 듯하다. 芬皇寺가 절정적으로 기우러진 것은 東京雜記에 적은 것처럼 壬亂때문인 것 같고 그 후 계속 축소되어 朝鮮朝末에는 現 普光殿을 중심으로 한 小庵의 규모로 축소되었던 것 같다. 이러한 사정을 東京雜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芬皇寺九層塔 新羅三寶之一也 壬辰之亂 賊毀其半 其後有愚僧欲改築之 又毀其半

四、發掘前狀況

金堂址로 推定되는 普光殿 주위는 다른 곳보다 높은 台地를 이루고 있다. 普光殿은 西向한 正面三間 側面二間の 建物이며 그 북쪽에 바깥 붙여 山神閣이 南向하고 있다. 이 건물의 서쪽은 약간 낮아져 마당이 되고 있으며 마당 서쪽은 僚舍채가 되고 있다. 이 요사채와 普光殿사이로 북쪽에는 또 하나의 건물이 있었지만 六·二五매 쪼뚝거었다고 한다. 이곳이 말하자면 朝鮮朝때의 芬皇寺였고 이 주위를 담장으로 막았던 모양인데 지금은 그 담의 일부가 철거된 建物址 북쪽에 남아 있다. 이 寺域의 門이자 樓였던 곳은 塔의 북쪽 우물 바로 옆에 있지만 지금은 우물 밖에 없다. 普光殿의 동쪽과 북쪽 그리고 남쪽은 몇년전까지 대나무 숲이었고 그에 잇달아 담이 둘러 있었지만 모두 제거되어 지금은 은행, 감나무, 사철나무 같은 나무들이 서 있는 약간 높은 台地를 이루고 있다. 普光殿 동쪽을 계단을 만들어 그 동쪽에 새로 新築한 요사채와 통하고 있으며 계단 동쪽은 요사채의 뜰로 사용되고 있다.

五、實測發掘調査經過

實測 및 豫備調査는 一九七五년 二月 八일부터 一八일까지 계속되었는데 一〇일부터 三일동안 平面實測을 완료하고 그 후 주위 遺物 특히 礎石들의 實測을 하였다. 그 후 普光殿 東과 北에 트린치를 넣어 新羅時代의 建築遺構一部 특히 동쪽에서 階段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普光殿 주위의 三間×三間으로 보이는 舊 礎石列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成果에 따라 一九七五년 一월 八일부터 본격적인 發掘調査를 실시하였던 것이다. 發掘은 普光殿을 中心으로 東·西·南·北의 四面을 區分하여 發掘을 시행하였는데 東·南·北·西의 순서로 우선 탐색 트린치를 넣었다. 그 후 東·南·北 面의 많은 부분은 遺構를 露出시켰다. 發掘作業은 一월 三〇일에 일단 막을하고 一二월 一일부터는 實測作業을 시행하였다.

六、發掘概要

① 基壇地臺石 및 階段址 調査

普光殿基壇中心에서 東으로 五·一五cm 지점에 新羅時代基壇地臺石列이 發見되었다. 길이 一一〇cm의 地臺石三點 밖에 더 나오지 않았지만 이것은 계속되는 地臺石列의 一部로 보여졌다. 셋 가운데 하나만 제대로 놓여 있을 뿐 다른 것은 교란된 채 뒤집혀 있었다. 이 地臺石 밖으로 階段의 디딤돌(踏石)이 놓여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제 위치를 지키고 있었으며 다른 하나의 디딤돌은 地臺石과 앞의 디딤돌에 가로 걸쳐 있었다. 아 이 디딤돌과 地臺石은 東요사채 마당 地表와 거의 같은 레벨이었다. 아마도 地臺石은 新羅舍堂의 東地臺石列의 一部로 일단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이곳이 바로 階段址로 推定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것 이 과연 創建 당시의 것인지 또는 統一新羅의 것인지는 교란이 너무 심하여 基壇構築土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는 명확히 구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일단 이것을 新羅時代 舍堂址의 東基壇과 階段址로 우선 추정하여 잠정적인 基準點을 잡고 現地表以上の 發掘부터 시행하였다. 여기

서 新羅時代金銅如來立像 二軀와 統一新羅막새瓦들이 出土된 것은 주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遺構는 四面 어디에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서 問題가 매우 복잡하게 되었다.

② 基壇構築土의 狀態

普光殿을 中心한 推定舍堂址의 基壇構築土는 검고 단단한 진흙층이 土層인 모래층 위에 있었고 이 위에 人頭大의 돌을 黃土로 다진 층이 있었다. 검은 진흙층은 東요사채 마당에서는 地表下 一八〇cm까지의 깊은 층을 형성하고 있었고 다른 곳도 대개 五〇cm 이상의 두터운 층을 형성하고 있었다. 동쪽에서는 검은 진흙층은 基壇 基대석에서부터 급격히 경사져 基단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점은 다른 곳도 마찬가지였다. 黃土와 돌을 다진 층은 교란이 심하여 判明하지 않았다. 돌이 많은 곳도 있었고 돌이 제거되어 잘 없는 곳도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돌층과 비슷하나 더 본격적인 돌층이 普光殿前마당에 전면적으로 있었는데 이 遺構도 좀더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③ 礎石의 確認

三國時代로 생각되는 方形礎石들이 現 普光殿주위로 놓여 있었다. 빠진 것도 있지만 이것을 復原해 보면 三間×三間의 建物址가 된다. 礎石心間으로 살펴보면 東西보다 南北이 약 一〇〇cm 더 긴 건물로서 아마도 現 法堂과 같은 向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이 礎石의 狀態를 살펴본 결과 이 초석의 積心石(銀石)으로 模塔塔돌과 기타 塼 그리고 부식토 등이 섞여 있어서 일단 後代에 移動된 것으로 推定되었다. 이들 礎石이외에는 그래도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초석은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다.

④ 舍堂向의 問題

지금까지 芬皇寺舍堂의 方向問題는 두갈래로 생각되어 왔다. 하나는 塔과 舍堂이 南北一直線上에 놓여 있다는 즉 南向이라는 通說과 다른 하나는 塔과 舍堂 모두 西向하고 있는 左殿(舍堂)右塔式의 西向說이다. 後者는 高裕燮先生이 일찌기 發說한 적도 있고 黃壽永團長에 의하여 이런 意見이 몇번 논의된 적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向問題가 舍堂復原이라든 이번 발굴의 성실상 중요한 문제였다. 지금까지의 발굴결과로 살펴

보면 全面發掘後에나 推定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現 普光殿 以前의 三間×三間의 古法堂建物이 현 보광전과 같이 西向일 가능성이 많아서 이러한 西向의 傳統이 세워진 데에는 그만큼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向問題에 하나의 중요한 시사는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문 제는 全面發掘을 한 후에야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七、出土遺物

① 金銅如來立像 二軀

① 一 形

全高 一一·五cm밖에 안되는 작은 金銅如來立像이다. 그러나 臺座가 完전히 있고 光背도 많이 삭았지만 대체로 남아 있는 셈이어서 完形의 佛像으로 보아 좋을 것이다. 이 불상은 무엇보다도 鍍金이 찬란하게 남아 있어서 다행스럽다. 螺髮에 肉髻가 큼직한 편이며 얼굴은 비교적 풍만한 편인데 미소를 담백 먹음고 있다. 신체는 당당하여 寫實風이다. 두 손은 施無畏·與願印을 짓고 있는데 왼손의 손가락이 약간 손상되었다. 佛衣는 通肩衣이며 양쪽 다리로 내려가는 衣紋 등은 線刻이다. 臺座는 上部가 仰伏蓮이고 中部가 八角에 眼象이 있으며 下部도 八角이다.

② 二 形

이 佛像是 臺座·光背 모두 없애지고 佛像만 남아 있는데 佛身變 一六五cm(대좌에 끼우는 고다리 一cm 포함 一七·五cm)로 小金銅佛치고는 큰편에 속하는 것이다. 螺髮에 肉髻가 있으며 얼굴은 풍만한 편이다. 어깨는 넓고 당당한 편이며 신체는 역시 사실풍이다. 두 손 역시 施無畏·與願印인데 오른손은 구부러 기교를 부리고 있다. 佛衣는 通肩衣이며 가슴에 三條의 띠집합이 있고 U形의 衣紋이 가슴과 두 다리로 각각 내려가고 있다.

② 鬼面瓦

鬼面瓦는 形態가 거의 完全하며 復原可能한 것이 二點 出土되었고 그 외 小片들이 多數있었다. 이 鬼面瓦들은 모두 같은 形들이는데 눈망울이 특특 붙어지고 코와 입이 특이하게 높은 등 소박하면서도 매우 힘찬 조각수법을 보여주는 新羅鬼面瓦의 最優秀作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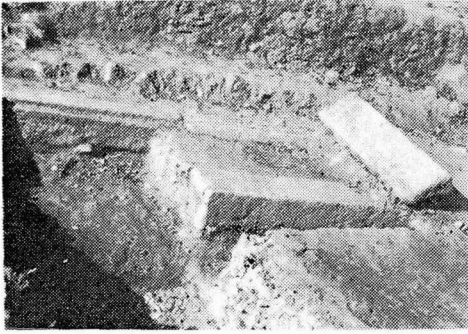


圖 3 : 金堂階段址 發掘狀態(東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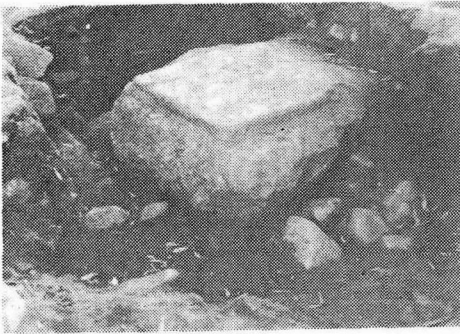


圖 4 : 礎石 出土狀態



圖 1 : 芬皇寺金堂址 發掘狀態(東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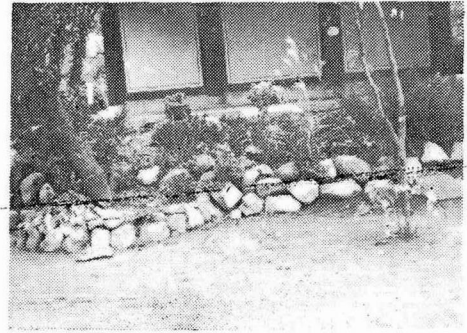


圖 2 : 芬皇寺金堂址 發掘前狀態(東에서)

이번 發掘로써 金堂址의 發掘이 完了된 것이 아니고 또한 全面的인 芬皇寺의 發掘이 年次的으로 시행되어야 하므로 우선 그 개요만을 간략히 報告하는데 그친다. 芬皇寺는 앞에서 말했듯이 三國統一 直前に 세운 王刹이기 때문에 伽藍配置라든가 建築構造라든가 또는 藥師如來像같은 여러가지 遺物은 新羅美術史上 매우 귀중한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八、맺는 말

아막새 기와들은 원양새가 새겨진 것, 龍이 새겨진 것, 唐草紋이 새겨진 것 등 新羅時代의 것과 高麗·朝鮮朝의 것도 있다.

기와들은 片들까지 합하여 수십점이 出土되었고 이 가운데 암·수막새기와들이 대부분인데 一五여종류로 분류되어 진다. 솟막새 기와들은 대부분 蓮花紋인데 瓣이 큼직하고 量感이 풍부하며 강건한 맛이 있는 三國期의 것이 三종류가 되며 섬세하고 화려한 統一新羅의 것이 七, 八종류나 되고 있다. 이외에 高麗·朝鮮朝 것들도 二·三종이 된다.

④ 瓦 當

無紋埴도 몇 종류가 있지만 특히 紋樣埴이 四종류나 出土되어 주목되었다. 주로 寶相華紋埴系統인데 모두 片들이 出土되었다.

③ 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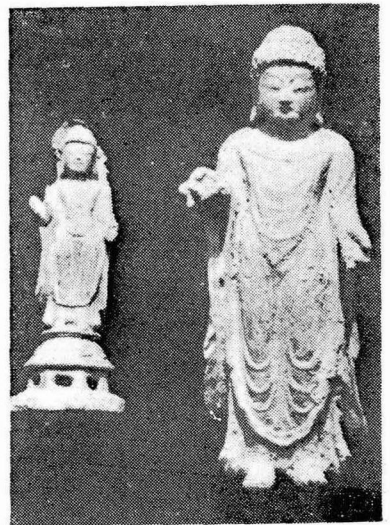


圖 5 : 金銅如來立像(8세기)